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꿈의 극단 강릉 결과자료집

2025 Dream Theater Operation Project
Dream Theater Gangneung
Results Data Collection

나와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무대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꿈의 극단 강릉 결과자료집

나와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무대

OUR STORY,
OUR STAGE

1

사업소개

1. 꿈의 극단이란

- ① 사업 소개 06
- ② 참여 지역 08

2. 2025 꿈의 극단 '강릉'

- ① 운영개요 09
- ② 소개, 팀 슬로건 09
- ③ 목표 09
- ④ 숫자로 보는 2025 꿈의 극단 강릉 10

2

교육과정

1. 교육 커리큘럼 소개 14

2. 교육과정 사진 및 현장 기록 18

3

정기공연

1. 제1회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

- ① 작품 소개 34
- ② 기획의도 37
- ③ 단원 소개 38
- ④ 정기공연 홍보 40

2. 공연 사진 및 주요 장면 기록

- ① 리허설 42
- ② 본공연 45

4

함께하는 사람들

1. 운영조직도 60

2. 인터뷰

- ① 예술감독 62
- ② 주강사 65
- ③ 행정담당자 및 참여 인력 72

3. 단원들의 이야기 76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꿈의 극단 강릉 결과자료집

1

사업소개

1. 꿈의 극단이란

- ① 사업 소개 06
- ② 참여 지역 08

2. 2025 꿈의 극단 '강릉'

- ① 운영개요 09
- ② 소개, 팀 슬로건 09
- ③ 목표 09
- ④ 숫자로 보는 2025 꿈의 극단 강릉 10

꿈의 극단이란

Theater of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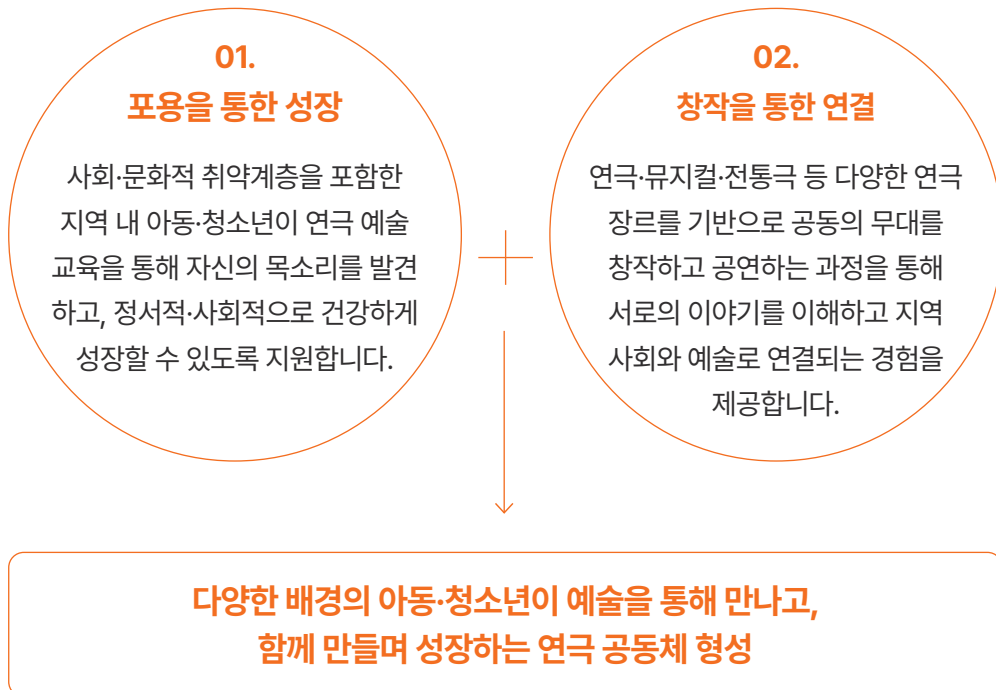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극단은 연극, 뮤지컬, 전통극 등 다양한 연극 장르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단원이 공동의 무대를 창작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경험을 함께 이루는 장기형 연극 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사업 비전

우리 안의 드라마, 무대 위의 드리머

꿈의 극단에서는 아동·청소년 단원이 연습부터 무대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극단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예술적 감각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성장시켜 나갑니다.

사업 목적



[꿈의 극단이 지향하는 방향]

우리 안의 드라마, 무대 위의 드리머

꿈의 극단에서는 아동·청소년 단원이
연출부터 무대 제작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극단 구성원으로서 입체적인
경험을 통해 예술가로 성장합니다.

● 개인의 발견

Discovery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발견

● 다양성의 인정

Diversity

다양한 참여자 간
상호작용으로 관계성 향상

● 용기 있는 도전

Challenge

예술적 경험을 기반으로
무대에 도전, 성취

●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결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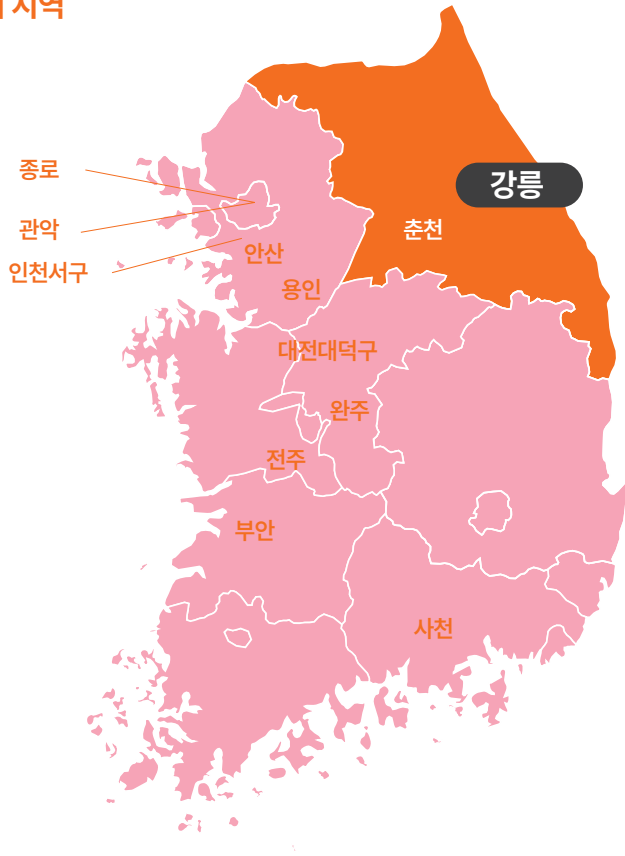
일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진입

● 함께하는 변화

Change

관객과 소통하며
변화, 성장

참여 지역



- 꿈의 극단 '부안'
- 꿈의 극단 '용인'
- 꿈의 극단 '안산'
- 꿈의 극단 '대전대덕구'
- 꿈의 극단 '완주'
- 꿈의 극단 '전주'
- 꿈의 극단 '강릉'**
- 꿈의 극단 '인천서구'
- 꿈의 극단 '사천'
- 꿈의 극단 '춘천'
- 꿈의 극단 '관악'
- 꿈의 극단 '종로'

2025 꿈의 극단 공통 대주제

사생활 : 사사로운 일상생활

2025년 꿈의 극단은 '사생활: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올해 공통 대주제로 설정하고, 전국 각 거점이 이를 바탕으로 레퍼토리 공연을 제작하도록 운영되었습니다.

강릉 이야기 How Gangneung Interpreted the Theme

꿈의 극단 강릉은 이 공통 대주제를 단원 개인의 '지금, 여기, 나'의 일상에 주목하여, 사사로운 경험과 감정을 무대 위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2025 꿈의 극단 '강릉'

꿈의 극단 '강릉'은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배우의 가치를 발견하는 예술교육의 장으로, 교육을 넘어 감정과 습관, 일상의 순간까지 품습니다. 함께 부딪히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의미와 예술의 힘을 깨닫는 과정 중심의 연극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팀 슬로건

**나와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무대**

목표

- ① 연극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창작과 표현의 경험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예술적 성장을 지원
- ② 문화취약지역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참여 구조로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확대
- ③ 공동창작 과정을 중심으로 협동심과 끈기를 기르는 과정 중심 예술교육 운영
- ④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공연 창작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지역 문화 활성화 도모

꿈의 극단 강릉 운영개요

Dream Theater
Gangneung

- **교육 대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학년~ 중학생 3학년
- **주 장르** 연극(음악극)
- **교육기간** 2025. 5. 31.(토) ~ 11.29.(토) 31회차, 99차시
- **교육장소** 명주예술마당 대연습실, 중연습실

숫자로 보는 2025 꿈의 극단 강릉

1

2025
꿈의 극단 '강릉'
1기 운영

24

꿈의 극단 단원
24명 참여

31

정기교육
31회차 운영
(7개월간)

95

극단을 향한 사랑이
참여와 몰입으로 이어진
높은 출석률

99

누적 교육 시수
99시수

385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관객석 만석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꿈의 극단 강릉 결과자료집

2

교육과정

1. 교육 커리큘럼 소개 14

2. 교육과정 사진 및 현장 기록 18

정규 수업 커리큘럼

회차	교육 일시	진행시간	주제	활동내용
1	5.31.(토)	10:00~13:00	오리엔테이션 및 꿈의 극단 소개	지원동기 및 짧은 질의 응답 - 오디션 미션
2	6.7.(토)	10:00~13:00	바라보고 알아가기	- 관찰력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타인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연극 놀이 경험 - 1:1 관찰과 공간 인식 놀이를 통해 - 관계 형성의 첫 단계 마련
3	6.14.(토)	10:00~13:00	몸으로 표현하기	움직임 중심의 연극 놀이를 통해 말보다 몸으로 표현하는 경험 확장 공간과 사물을 활용한 놀이로 연극적 상상력과 즉흥 표현 기초 형성
4	6.21.(토)	10:00~13:00	감정을 나누다	다양한 감정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 공정한 규칙과 존중을 바탕으로 집단 안에서의 안전한 소통 경험
5	6.28.(토)	10:00~13:00	함께 몰입하다	몰입의 개념을 이해하고 연극 놀이 속에서 집중과 신뢰 경험 일상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집단 내 유대감 형성
6	7.5.(토)	10:00~13:00	소리로 나를 드러내다	- 소리의 크기와 감각을 탐색하며 자신의 존재와 감정을 목소리로 표현 - 일상의 소리를 놀이로 전환해 무대 위 표현의 출발점 마련
7	7.12.(토)	10:00~13:00	말과 글, 이야기의 씨앗을 발견하다	- 직업·장소 타블로와 텍스트 읽기를 통해 말하기와 읽기의 연극적 가능성 탐색 - 일상의 언어가 이야기가 되는 경험 축적
8	7.19.(토)	10:00~13:00	대본을 통해 인물이 되다	- 목소리 조절과 리딩을 통해 텍스트를 '말'과 '몸'으로 옮기는 과정 - 공연 대본과의 첫 만남을 통해 무대 위 인물로의 전환 시작

회차	교육 일시	진행시간	주제	활동내용
9	7.26.(토)	10:00~13:00	함께 만드는 장면과 공동의 무대	- 관람 경험을 공유하며 감상을 언어화하고 발성·호흡 훈련을 통해 표현력 확장 - 수정 대본 리딩과 캐스팅을 통해 공동창작의 구조를 구체화
10	8.2.(토)	10:00~13:00	무대를 향한 첫 발걸음	- 발성과 연극놀이를 통해 무대 위에서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경험 - 장면 만들기를 통해 '공연 공간'에 대한 감각 형성
11	8.9.(토)	10:00~13:00	노래로 확장되는 표현	특별 수업을 통해 노래와 가사를 연극적 표현의 요소로 습득 음악과 결합된 장면을 만들며 감정 표현의 폭 확장
12	8.16.(토)	10:00~13:00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장면	음악에 맞춘 안무를 통해 몸의 움직임과 리듬을 무대 언어로 전환
13	8.23.(토)	10:00~13:00	무대 위 공동의 질서	장면 디테일을 쌓으며 공연 완성도 향상 전체 연습과 리딩을 통해 공연 구조를 입체화
14	8.30.(토)	10:00~13:00	무대 위 공동의 질서	무대 전술과 대형을 배우며 개인의 움직임이 하나의 장면이 되는 경험
15	9.6.(토)	10:00~13:00	무대를 대하는 태도 배우기	안무·노래·대사 점검을 통해 무대를 위한 기본 준비의 중요성 인식 '배우로 선다는 것'의 책임과 태도에 대한 공감 형성
16	9.13.(토)	10:00~13:00	반복을 통한 완성도 높이기	반별 복기와 장면 만들기를 반복하며 장면의 안정감과 밀도 강화

정규 수업 커리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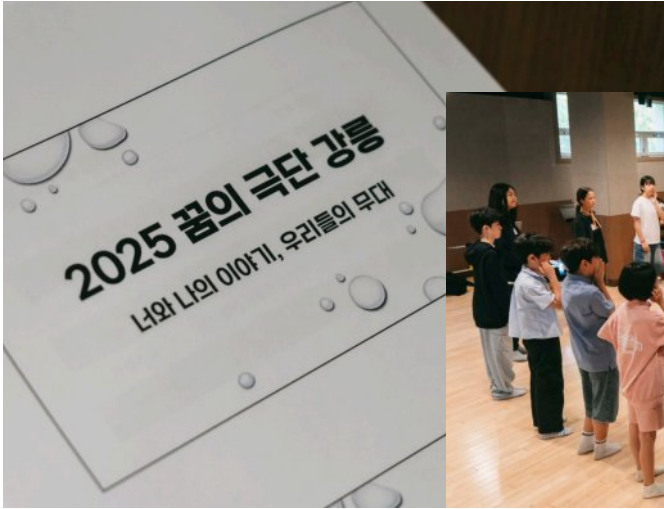
회차	교육 일시	진행시간	주제	활동내용
17	9.20.(토)	10:00~13:00	반복을 통한 완성도 높이기	과제 확인과 체크를 통해 개인의 노력이 공동 작업에 미치는 영향 체감
18	9.27.(토)	10:00~13:00	장면에서 공연으로	개별 장면을 연결하며 공연의 흐름과 구조를 인식 전체 연습을 통해 하나의 무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 경험
19	10.11.(토)	10:00~13:00	공연을 향한 리듬 맞추기	노래·안무·대사 리딩을 통해 공연 구성 요소를 다시 정비 음악을 매개로 장면을 재구성하며 공연 흐름 감각 회복
20	10.18.(토)	10:00~13:00	극장이라는 공간을 만나다	극장 투어를 통해 공연 공간과 무대 환경에 대한 이해 확대 의상 착용 및 수정 과정을 거치며 무대 위 '배우로서의 나'를 인식
21	10.25.(토)	10:00~13:00	공연을 향한 준비의 완성	프로필 촬영과 장면 연습을 통해 공연을 앞둔 준비 과정 마무리 연습과 기록을 병행하며 무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점검 진행
22	11.1.(토)	10:00~13:00	장면을 하나의 공연으로 잇다	개별 장면을 정리하고 연결하며 공연의 전체 구조를 완성 반별 연습과 전체 연습을 통해 무대 흐름의 안정감 확보
23	11.8.(토)	10:00~13:00	반복과 보완으로 다지는 완성도	반별 보충 연습을 통해 장면·안무·노래의 디테일 강화 런과 런스루를 반복하며 공연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림

회차	교육 일시	진행시간	주제	활동내용
24	11.8.(토)	18:00~20:00	정기공연 집중 연습 기간	팀별 장면 추가 연습과 역할별 훈련을 통해 공연 장면의 완성도를 높이고, 단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는 집중 연습 진행
25	11.9.(일)	18:00~20:00		
26	11.14.(금)	18:00~20:00		
27	11.15.(토)	10:00~13:00		
28	11.20.(목)	15:00~21:00	리허설 1일차	공연장 안전교육 및 무대 동선 재점검
29	11.21.(금)	15:00~21:00	리허설 2일차	극장 최종 리허설
30	11.22.(토)	12:00~18:00	정기공연	제 1회 꿈의 극단 강릉 정기공연
31	11.29.(토)	10:00~13:00	<성과공유회> - 단원들의 성장 조명 및 공연 기록영상 시청 - 수업 마무리	정기공연 영상 시청과 소감 나누기를 통해 한 해의 여정을 되돌아봄 만족도 조사 및 개근상 수여를 통해 성취를 기록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

5월

꿈의 극단과의 첫 만남을 통해, 단원과 보호자가 함께 앞으로의 여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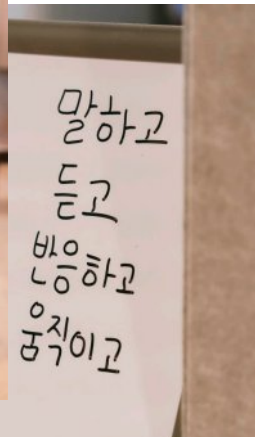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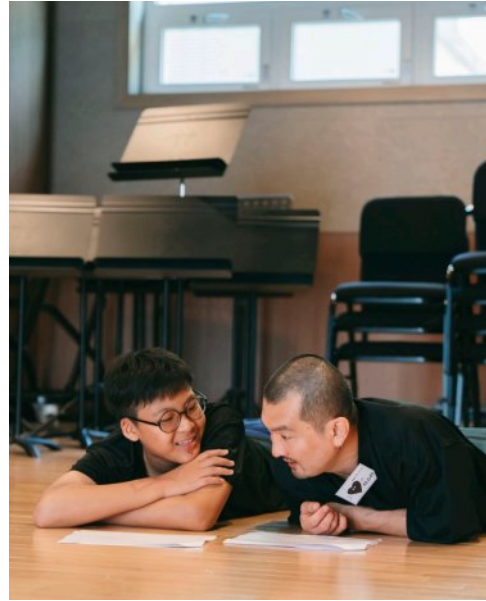
첫 만남으로 시작된 5월에 이어 관찰과 움직임,
감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극단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7월

소리와 언어라는 일상의 감각을 출발점으로,
대본과 인물, 공동창작으로 확장되는
연극적 사고의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8월

목소리와 노래, 움직임을 결합해
장면을 구체화하고 무대 위 표현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9월

'배우로 서는 태도'를 중심으로,
개인의 준비와 책임이 공동의 무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10월

연습실에서 준비한 장면들을 바탕으로,
공연을 앞둔 무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1월

반복과 보완을 거쳐 연습의 시간이 무대가 되고,
무대의 경험이 다음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하나의 완성된 여정이었습니다.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꿈의 극단 강릉 결과자료집

3

정기공연

2025

꿈의 극단 강릉 제1회 정기공연

2025.11.22.(토) 17:00(60분)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WELCOME TO GANGNEUNG!
'사생활: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공동 대주제로 한
2025 꿈의 극단의 여정 속에서,
꿈의 극단 강릉은 일상의 감정과 관계를 무대로 옮겼습니다.

여정의 첫 결실,
제1회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를 선보입니다.
배움의 시간을 지나 아이들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스스로 펼쳐지는
이 뜨거운 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회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

작품 소개

시놉시스

아침이면 어김없이 학교로 향하던 아이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둠과 함께 정신을 잃고 눈을 뜬 그곳은 낯설고 깊은 바닷속입니다. 익숙했던 일상과 단절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며 서로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힘을 모아 버텨내며, 부딪히고 기대는 여정을 함께해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서서히 깨닫습니다. 늘 곁에 있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온기, 친구의 웃음,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 소소한 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살아 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말입니다. 차갑고 고요한 바다 깊은 곳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나의 안테나에게》는 일상이 사라진 순간 비로소 드러나는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 그리고 삶의 가치를 마주하게 하는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기획의도

《나의 안테나에게》는
꿈의 극단 연극 교육과 창작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관계,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무대 위로
옮긴 작품입니다.

작품은 익숙했던 일상이 사라진 낯선 공간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이 여정을 통해 개인의 감정과 생각, 사소해 보였던
일상의 순간들이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단원소개



곽다윤



곽현준



구하연



권다인



권루빈



김건모



김건우



김도요



김민준



김수연



김희수



노태윤

꿈의 극단 '강릉' 단원 소개 (24명)



박진서



신민수



심서은



염은솔



유도영



이서준



이준



장연우



지을호



허소을



홍지유



황승비

포스터, 강원일보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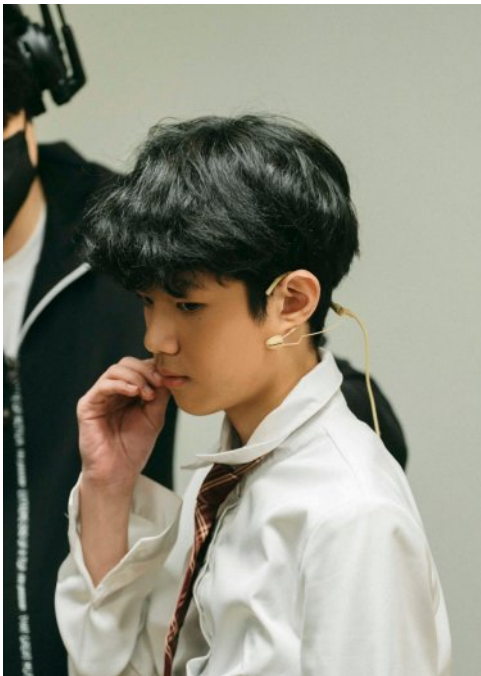
옥외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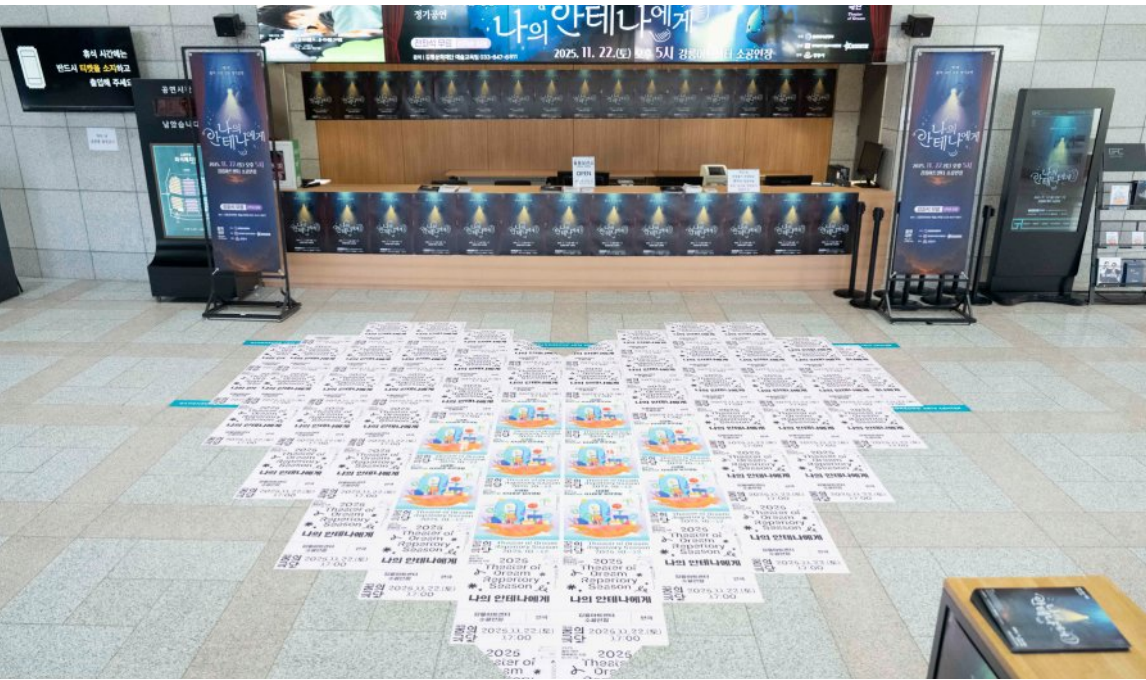
리허설



리허설



리허설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본공연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꿈의 극단 강릉 결과자료집

4 함께하는 사람들

1. 운영조직도	60
----------	----

2.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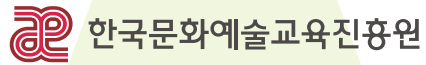
① 예술감독	62
② 주강사	65
③ 행정담당자 및 참여 인력	72

3. 직원들의 이야기	76
-------------	----

운영조직도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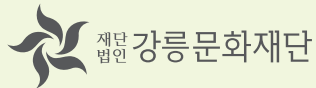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강릉시

거점기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5
강릉 꿈의극단

함께 해주신 분들

주요 인력

예술감독 서승현
강사진 권다림 · 안정민 · 조은진

운영인력

지자체 담당 이화정 · 엄세인
행정 담당 최효선 · 권희경

창작인력

제작PD 김재현
음악·작곡 신지혜
극작가 문혜진



“

연극은 놀이다!!!
즐겁게 놀자~

서승현 예술감독

1. 자기소개

꿈의 극단 강릉 예술감독 서승현입니다. 20년 이상 배우 활동 및 안무가, 연출로 활동 중이며 연극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놀이다, 놀면서 즐겁게 연극하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과 공연

예술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했던 목표나 방향은 무엇이었나요? 연극을 잘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태도'를 배우고 익히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첫 수업부터 꼭 지켜야 할 5가지 약속을 정해놓고 강사진들도, 학생들도 다 함께 지키며 연기를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과 작업을 진행했나요? 초반에는 놀이로 연극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도 함께 놀이에 참여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표현력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룹을 나누어 강사진들과 대본 해석, 장면 구성 등 자기의 의견을 내어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장면을 만들고 공연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랐던 지점이나 인상 깊었던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약 7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작업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무대 위에 선 아이들의 모습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변화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부분(속도, 크기 등), 감정 표현 방식, 그리고 자신감에서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학생의 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 초반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서툴렀지만, 수업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경험하면서 점차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고, 동시에 이러한 예술 교육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으로 남기를 바라셨나요? 아이들에게 ‘첫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접한 연극이 지루했다면, ‘연극은 재미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 특히 연극은 어렵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재밌는 것이라는 감각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예술을 사랑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2. 향후 비전과 계획

꿈의 극단 강릉이 앞으로 어떤 극단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지역에서 꾸준히 신뢰받고 사랑받는 극단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던지는 자기 고민과 질문을 무대 위에서 직접 이야기 하고, 서로 공감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실제 고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어른들 또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 비하인드 스토리

연습 과정이나 공연 준비 중, 지금 떠올려도 웃음이 나는 순간이나 예상 밖의 장면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극장은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성인 배우들조차 극장에 들어서면 긴장하기 마련인데, 처음 무대에 서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낯설고 조심스러운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했고, 무대 위에서의 장난은 분명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리허설을 큰 사고 없이 마쳤고, 공연 시작을 두 시간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긴장만 주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때만큼은 아이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십여 명의 아이들은 객석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 몇몇은 무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실수로 무대 세트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고,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라면 주의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도 순수하게 느껴져 한참을 웃고 나서 가벼운 주의와 함께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극장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도 들었고, 동시에 사라진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시간이었나요? 활활 불태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다림 주강사

1. 자기소개

2025 꿈의 극단 강릉에서 주강사를 맡았던 권다림입니다.

2. 프로그램과 공연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연극을 잘 하는건 아주 쉬운 일이다. 인물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고 타배우와 약속을 하고 약속

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즉 연기의 기본보다는 연극의 기본을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행동보다 인물의 전 대사를 유추하여 인물의 원하는 진정한 행간을 찾을 때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수동적이 아닌 스스로 능동적으로 연극 작업에 임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연습실에서의 시간이 공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강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저희 극단은 바로 리딩에 들어가기보다 아이스브레이킹 수업과 연극놀이 활용해 관찰력, 집중력, 표현력, 전달력 수업을 9차시동안 할애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과연 이것이 작업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정도인가 걱정했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함께 하고 챙겨주는 모습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장면을 만들고 극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주강사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저희 극단은 연령별로 조를 나누어 수업하였습니다. 분반제를 통해 조금 더 디테일한 연기를 코칭할수있었습니다.

3. 접근과 관계형성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주강사로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접근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첫 만남에서 무언가를 고려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눈을 마주고 이름을 기억하는데에 몰두했습니다.

연습 과정 중 아이들의 감정이나 태도를 고려해 지도 방식을 조정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간에 갈등이 생기면 수업을 중단시켜 공론화보다는 수업 후 따로 양쪽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

만 또다시 같은 문제이거나 한쪽이 도드라지게 감정적인 표현을 수업중에 할 때에는 부모님과 통화로 아이의 상황을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꿈의 극단 학생들은 배우가 꿈이기보다 개인의 경험이 더 중요한 아이들에게 가끔 다소 공통의 목표점을 잊고 자신의 상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었던 듯합니다. 저희는 극히 단원들의 하루 중 3시간만을 관찰하기에 부모님과 소통으로 아이에 대한 이해를 더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4. 비하인드 스토리

수업이나 공연 준비 과정에서, 지금 떠올려도 웃음이 나거나 마음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준비과정은 아니었고 공연이 끝난 다음주에 함께 공연영상을 시청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타인의 대사를 외워서 따라하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시간이었나요? 아이들도 아침이 힘들었겠지만 아이들을 만나러 일어나는 새벽의 침대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안정민 주강사

1. 자기소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예술을 하며 살고 있는 안정민입니다. 이번 강릉 꿈의 극단에서는 주강사로 C반 친구들을 전반적으로 맡아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했습니다.

2. 프로그램과 공연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쏟지는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느낀 인류애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 같아요. 어색한 첫 대면부터 시작해서 끈끈하게 서로를 챙기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 시간이 만들어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챙겨주는 모든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단순한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해온 아이들의 모습에서 조금씩 배우의 면모가 보였던 거 같아 가장 크게 놀란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의 시간이 공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강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위 질문의 대답과 거의 유사한데 공연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긴장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숙해지는 지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장면을 만들고 극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주강사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았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메인 예술감독님이 계시니 극을 만들기 보단 조감독의 역할과 제가 맡은 반의 친구들을 케어하고 약간의 연기적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 싶네요.

3. 접근과 관계형성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주강사로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접근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경청과 놀이 밖에는 없을 거 같았고 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한창 말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을 나이에 그런 것들을 먼저 충족 시켜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 과정 중 아이들의 감정이나 태도를 고려해 지도 방식을 조정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크게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조정보다는 제 적정 선에서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손이 조금 더 가는 정도..?

4. 비하인드 스토리

수업이나 공연 준비 과정에서, 지금 떠올려도 웃음이 나거나 마음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공연이 끝난 뒤에 다시는 못 보는 줄 알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율호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린 친구들이 몇 있긴 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류애가 가득 생긴 율호가 참 좋았고 이뻐했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시간이었나요? 아이들의 성장만이 아닌 주강사인 저 또한 많은 성장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벽에도 부딪히고 고민하고 해결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시간의 연속이 저 또한 성장시킨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 시간이 나중에는 잊혀지겠지만 아주 천천히 잊혀져서 연극을 하든 안하든 너희들의 삶에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저에게도 자양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할 때
빛이 난다.

조은진 주강사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아이들과 연극을 통해 '함께하는 경험의 소중한'을 나누고 있는 강사 조은진입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연극의 가치를 전하고자 합니다.

2. 프로그램과 공연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함께하는 경험의 가치'였습니다. SNS와 개인 매체에 익숙해지면서 사람과 직접 부딪히고 소통하는 것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연극이라는 공동의 작업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고 듣고 맞춰 가는 과정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장면을 함께 완성해 가는 경험을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성장을 자연스럽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느낀 순간은, 강사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공연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특히 말학년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리드하며, 공연과 연습에 더욱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성장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의 시간이 공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강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수업 회차가 거듭될수록 아이들 스스로 장면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디테일과 호흡을 맞춰 나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강사의 지시 없이도 서로를 살피며 움직임과 감정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연극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면을 만들고 극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강사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아이들이 작품 속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아이들 스

스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과 방향 제시를 통해 돕고자 했으며, 각자의 생각이 장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3. 접근과 관계형성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 강사로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접근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나 완성도를 강조하기보다, 아이들이 긴장을 풀고 공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즐겨하는 손게임을 함께 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마주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연습 과정 중 아이들의 감정이나 태도를 고려해 지도 방식을 조정했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교성이 적고 내성적인 남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타인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했으며, 자신을 드러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큰 역할이나 즉각적인 표현을 요구하기보다,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동과 짧은 대사부터 차근차근 시도하

도록 지도했으며, 개별적으로 조용히 피드백을 전달하며 안정감을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점차 연습 공간과 활동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는 어려워하던 눈 맞춤과 발화에도 점차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 자연스럽게 또래와 시선을 주고받으며 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역할 외에 추가 대사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표현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공연 당일에도 긴장 속에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시간이었나요? 꿈의 극단 강릉과 함께한 1년은, 아이들 안에 숨어 있던 가능성과 빛나는 순간들을 발견해 나간 시간이었다.

4. 비하인드 스토리

수업이나 공연 준비 과정에서, **지금 떠올려도 웃음이 나거나 마음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수업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었던 한 아이의 말로 상처를 받아, 초반에는 함께 활동하기를 꺼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습 초반에는 두 아이 사이에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쌓이자 분위기가 점차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처를 받았던 아이가 대사와 동선을 잘 외우지 못하는 그 친구를 챙기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아이들의 관계와 성장을 느낄 수 있어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는 순간입니다.

권희경 행정담당

“ 그래도, 끝까지. ”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꿈의 극단 강릉 사업의 행정담당자로, 기획부터 운영, 현장 조율과 기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강릉문화재단 예술교육팀 권희경입니다. 이 책을 펼쳐주신 분들께 감사와 반가운 마음을 전하며, 이 기록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의 흐름과 과정을 담고 있기를 바랍니다.

커리큘럼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무엇인가요?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정기공연이라는 목표가 분명했지만,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성취만을 요구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연습의 속도, 휴식의 리듬, 관계의 온도가 무너지지 않게 행정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점검했습니다. 아이들이 흔들릴 때는 잠시 멈출 수 있도록, 잘하고 있을 때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도록 일정과 규정, 예산이라는 틀 안에서 현장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아이들과 강사진, 그리고 행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행정이 앞서 나가기보다 교육과 창작의 흐름

을 조용히 따라가며 그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은 어떤 사업으로 기억될 것 같나요? '꿈의 극단 강릉'은 아이들에게 무대 위의 결과보다,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시간을 선물한 사업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연극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과 일상을 들여다보고,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을 몸과 목소리로 표현해 보며,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고, 그 믿음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각자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업은 하나의 공연을 완성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고 정리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김재현 제작 PD

“ 작은 역할은 있어도
작은 배우는 없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의 극단 강릉의 협력단체인 아트컴퍼니 해랑 대표이자 제1회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 제작PD를 맡은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를 준비하며, 작업 과정과 (각자의 분야에서) 그 안에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을 들려주세요. 꿈의 극단 강릉의 첫 번째 발걸음인 《나의 안테나에게》는 아이들을 빛내주고 싶은 어른들의 진심 어린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작PD로서 처음 연기를 접하는 아이들이 강릉아트센터라는 큰 무대 위에서 기죽지 않고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예술감독님과 강사님들 그리고 무대 뒤의 기술팀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소극적인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첫 연습과 극장에서 마지막 리허설이 대비되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무대를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첫 연습 때의 정적과 극장에서의 마지막 리허설이 보

여준 대비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무대를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무대의 활기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극의 힘을 믿고 공연으로 어른들에게 감동을 준 꿈의 극단 배우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꿈의 극단 '강릉'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꿈이 자라나는 곳

신지혜 음악·작곡

“ **도망치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보기!** ”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꿈의 극단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의 작곡을 맡은 신지혜입니다. 주로 뮤지컬과 인형극의 음악감독과 작곡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으며, 피아노 연주자로서 직접 공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를 준비하며, 작업 과정과 (각자의 분야에서) 그 안에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을 들려주세요. 음악 안에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의 밝은 에너지와 이야기를 담고 싶었지만, 뮤지컬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에 참여하면서 지켜보다 보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볼러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극의 후반에 친구들이 바다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사용된 음악이 있었는데, 처음에 요청받은 음악은 유쾌하고 가벼운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모험시작-위기-도착' 과정을 음악에 녹여내어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곡을 맡고 있다보니 모든 수업에 다 참여하지 못했고, 연습 초반과 후반에만 참여를 했는데요. 초반에 의사표현을 어려워하거나 수줍어 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다가, 무대에서 씩씩하게 연극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주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소중한 경험”:제가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어린시절의 소중한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협동하고 노력해서 무대에 오르는 모든 과정들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고 미래의 꿈을 향한 좋은 양분이 될 것입니다.

문혜진 극작가

“ **꿈꾸는 법을 까먹지마!** ”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이번 <꿈의 극단>에서 대본을 맡은 문혜진입니다. 아이들 각자가 가진 생각들에 대해서 듣고 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를 준비하며, 작업 과정과 (각자의 분야에서) 그 안에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을 들려주세요.

<꿈의 극단>에 참가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것이 작은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동화같은 이야기를 할수도 없었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또 연령이 낮은 친구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술감독을 맡은 서승현 연출가와 함께 그 중간 지점을 찾아 극의 구성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같은 학년임에도 아이들 한명한명의 개성이 강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료조사' 차원으로 극의 흐름에 필요한 정보들을 각자 적어 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기 전까지의 행동같은 현실적인 부분부터 만약 하루아침에 무인도에 간다면? 이라는 허무맹랑한 질문을 던졌는데, 너무 예상외의 답변이 나와 대본을 완성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몰랐던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황승택 촬영감독

“ 아이들이 이 순간을 생생히 간직할 수 있게 만들자!”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강릉에서 사진 찍고 영상 만드는 황승택입니다. 꿈의 극단 사진과 영상을 담당했습니다.

정기공연 《나의 안테나에게》를 준비하며, 작업 과정과 (각자의 분야에서) 그 안에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지점을 들려주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과, 아이들이 각자 소화해나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을 이미지만으로 설득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활동 초반에는 과연 이 아이들로 연극 공연을 올릴 수 있을지 걱정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연기와 연극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봤을 때의 충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꿈의 극단 '강릉'을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성장형 히어로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집'이다.



곽다운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의 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내 친구들 모두 공연이 끝나서 후련하지 않냐고 물었다. 물론 후련하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작품을 연습하고 공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고 아쉬웠다.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는 기쁨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워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 무엇이었나요? 당당함이 생겼다. 나는 나의 흥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꿈의 극단을 하면서 당당함이 생겨 나, 진짜 나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 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쉬움 50% 기쁨 50%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다들 사랑해요 ♥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집'이다. 하는 동안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주말'이다.



곽현준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 서로 친해진 것 같아서.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항상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 같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주말'이다. (기다리게 되어서)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꿈의 극단이 끝나니까 아쉽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미래'다.



구하연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꿈의 극단 공연이 끝나고 인사하며 커튼콜이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7개월동안 열심히 공연을 연습했는데, 커튼콜을 하면서 지금까지 연습한 것들이 떠올라서.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무대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잘 안하고 어색해 했는데, 꿈극 연습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나아진 것 같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나 자신에게 멋지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더 잘할 수 있었을텐데 하고 후회하는 감정도 떠올랐다. 또 다음에도 이런 무대에 다시 공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내년에도 만나서 함께 공연하면 좋겠다. 그리고 7개월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나중에 만나자!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미래'이다. 왜냐하면 나의 꿈이 배우인데 꿈극을 하면서 미래에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시발점'이다.



권다인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기다리던 대본을 드디어 받아 극단 친구들과 함께 맞춰볼 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 처음 받아보는 '내'대본이고 함께 맞춰보는 행위가 너무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 무엇이었나요? 내가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한 연령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평소에는 친한 친구들 위주로 지냈지만 극단을 통해 많은 친구들, 동생들과 어울리는 나에게 스스로 놀랐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드디어 끝났다.' 라는 해방감, 오랫동안 준비한 공연을 보여줬다는 뿌듯함, 컨디션이 좋지 않아 준비한 만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 등 다양한 감정이 느껴졌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7개월이라는 짧기도 길기도한 시간동안 잘 지내줘서 고맙고 재밌었어. 길가다 보면 인사하자^^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시발점'이다. 꿈의 극단을 통해 앞으로의 배우의 길, 모델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스케치북'이다.



권루빈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언니 오빠들과 친해지면서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특히 리허설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힘든 만큼 뿌듯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자신감이 생겼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고, 말하는 실력이 늘은 것 같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 너무 재밌다!! 내년에도 하고 싶다!!! 뿌듯하다! 해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선생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오빠 함께하고 도와줘서 고마워. 내년에도 모두 모두 만나.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스케치북'이다. 새하얀 꿈이라는 종이 위에 선생님들이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알록달록 색칠은 내가 마음대로, 내 색깔대로 칠 할 수 있어서!!



나에게 꿈의 극단은
'김건모'이다.



김건모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꿈극 처음 왔을 때 놀이.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목소리, 발음.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7개월동안 연습하고 그랬는데 잘했다는 감정.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고마워요.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김건모'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지구'다.



김건우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할 때.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자신감을 키웠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행복, 즐거웠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지구'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나도 모르는 나'다.

김도요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으로 리허설을 위해 소공연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오면 어떡하지?', '내가 연습 한만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등의 설렘, 긴장, 기대, 걱정이 한번에 느껴졌고 공연을 한다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어서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자신감. 사실 연극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남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해도 격려해주는 선생님들과 정해진 '대본'이 아닌 '나의 생각'을 표현하라는 선생님들의 응원 속에서 연습하다 보니 자신감도 올라가고 나의 마음, 생각을 더 잘 표현하게 되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희열. 서승현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높게 떠오른 감정은 관객들이 나를 보고있

고 나를 관찰하며 나로 인해 웃었다는 점에서 나온 '희열감', '성취감' 이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항상 상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제 의견을 그냥 들어넘기지 않고 존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더 많은 해를 함께 할 수 있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부러운 건 또 처음이었어요. 애들이 7개월동안 수고했고, 내년에도 꼭 다시 만나면 좋겠다. 항상 고마웠어.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연극을 하면서 '나'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내가 맡은 캐릭터로서 하며 일상 생활 속에서도 그 친구처럼 말하는 나로 인해 놀랄 때가 있었다. 그렇게 그 캐릭터의 일부분이 내가 되었다. 이처럼 나에게 꿈의 극단은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자신감'이다.



김수연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마지막 공연한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서로 친하게 재밌게 공연을 끝내서입니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을 담아서 열심히 공연을 보여준 게 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연습도 하고 선생님들이 감정이나 표정 잘 알려주셔서 변화를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슬픔. 공연이 끝나고 꿈의 극단이 끝나서 너무 슬퍼서입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선생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 너무너무 고마웠어. 비록 싸우기도 했지만 그동안 고마웠어.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자신감'이다. 왜냐하면 꿈극을 하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전쟁터이자
놀이터'이다.

김희수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양한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는 게 좋았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 했는데 연극 연습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잘 말할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너무 슬펐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슬프고 지금의 과정이 생각 나서.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그동안 고마웠고 다음 꿈극에서 만나자. 이 과정을 함께한 게 대단했어. 선생님들 저희 잘 챙겨주시고 부족한 점 채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전쟁터이자 놀이터'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최고'다.



노태운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밥 먹던 순간. 왜냐면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목소리, 발음.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뷔페 생각.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재밌었어요.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최고'였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별'이다.



박진서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할 때 인상깊었다. 왜냐하면 루빈이가 신발이 벗겨졌는데 잘 대처한 게 재밌었기 때문이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목소리가 커졌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잘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어려워하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별'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추억'이다.



신민수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 시작 전 7개월 간의 노력이 실연된다는 것이 떨리며 행복해서 공연 시작 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자신감이 생기고 목소리가 커졌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모두 고생했고 힘들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추억'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친구'다.



심서은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났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꿈의 극단에 오게 된 이야기들이 공감되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좋았어요.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어색하기만 하던 대사나 동작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신기하고 내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잘 한걸까? 우리가 잘 끝냈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후련함과 뿌듯함, 기쁜 마음들이 생겼어요.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선생님들께: 선생님 저희를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재밌게 수업해 주신 것도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요. 친구들에게: 애들이 마지막날 못가서 서운했는데, 꼭두의 노래 공연날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 앞으로도 건강히 잘 지내고 또 보고싶어.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친구'다. 왜냐하면 계속 만나서 함께 해서 좋았고 그게 친구니까.



나에게 꿈의 극단은
'자유'다.



염은솔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꿈의 극단에서 공연하기 전에 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 무엇이었나요? 자신감이 늘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나 너무 잘함.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엔 만나요!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자유'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분장실'이다.



유도영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 감독님, 선생님, 누나들, 친구, 동생, 형아랑 재미있게 놀았을 때요.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 무엇이었나요? 안무자리를 잘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잘 찾게 되었어요.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공연을 잘해서 기분이 좋았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재미있게 놀아줘서 행복했어.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분장실'이다. 친구들이 여러옷을 입어보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입니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놀이터'이다.



이서준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 연습마다 인상 깊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 무엇이었나요?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았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놀이터'이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끝나서 아쉬웠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삶'이다.



이준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연 전 리허설 때가 제일 인상 깊었다. 이유는 지금까지 7개월동안 연습해왔던 시간들이 다 생각났기 때문이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 무엇이었나요? 꿈의 극단을 알기 전에는 꿈을 찾지 못했는데 꿈의 극단을 알고 난 후에는 '배우'라는 꿈과 목표가 생겨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생겼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끝났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사랑하고 좋아해주신 친구들과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삶'이다. 이유는 꿈의 극단으로 인해 나의 삶이 바뀐 것 같기 때문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행운'이다.



장연우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부끄러움을 벗어나서 자신 있게 큰소리로 연극할때.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처음엔 말이 잘 안나왔는데 날이 갈수록 주변이 편해지고 하나하나 배우며 대사를 자신있게 칠 수 있게 되었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후련하고 좋은경험을 한거 같아 기쁘고 고생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고싶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많은경험과 좋은말씀 많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들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 꿈의 극단은 '행운'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웃으면서 배우는
연극'이다.



자율호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무대 위에서 연극할 때.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용감해지고 재미있고 너무 좋았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선생님들을 못 볼까봐 슬펐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고생했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웃으면서 배우는 연극'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용기를 준 곳'이다.



허소율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마지막 최종 리허설이 가장 인상 깊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분으로 리허설을 한 것 같고 곧 이 극장에 관객들이 찬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더 떨렸고, 이제 곧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아쉽고 슬퍼졌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원래 낮을 진짜 많이 가려서 목소리가 작았는데 연습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지금까지 열심히한 게 끝나니까 아쉬웠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선생님들: 선생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같이 호흡 맞춰주고 다 같이 열심히 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용기를 준 곳'이다.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할 때 용기를 내게 준 곳이었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인간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홍지유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극단 첫 날이 가장 인상깊었다. (꿈의 극단의 배우 한 명이 된 첫 날이기 때문이다.)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아닌, 더 활발한 내가 될 수 있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다음주가 마지막 이네. 근데 왜 다음주가 마지막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허무했다.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다림쌤께, 다림쌤 내년에도 꼭 극단에 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나에게 꿈의 극단은 000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인간이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학원'이다.



황승비

꿈의 극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무대에서 연습할 때. 왜냐하면 명주예술마당(연습실)이랑 달라서.

연습과정에서 스스로 놀랐던 '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발음이 좋아진 것 같다.

공연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실수를 했나 안했나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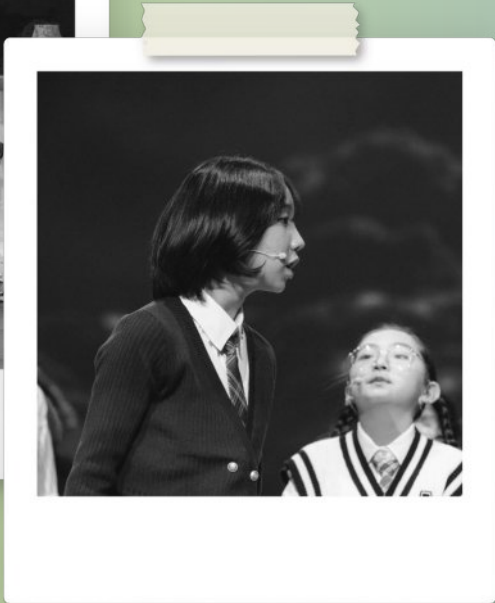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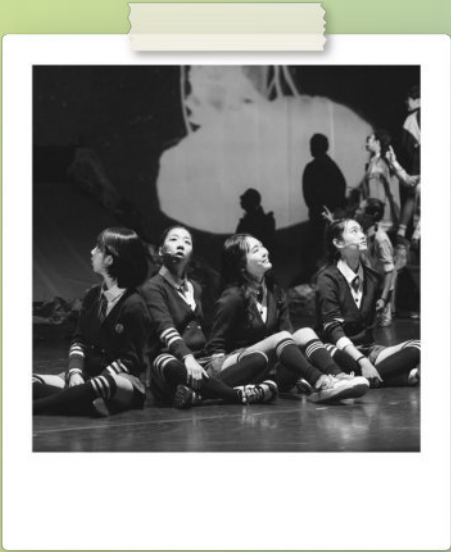
7개월동안 함께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7개월 동안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OOO이다. 나에게 꿈의 극단은 '학원'이다. 왜냐하면 발음이나 여러 가지를 배워서.





감사함을 말하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예절을 지키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공연 바로가기

제1회 정기공연

촬영상 바로가기 QR



꿈의 극단 강릉

유튜브 페이지 QR



나와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무대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꿈의 극단 강릉

'나와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무대'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5.12.

발행처 강릉문화재단

25535 강릉시 경강로2021번길 9-1 강릉문화재단

033-647-6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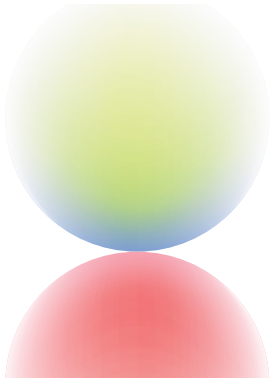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강릉문화재단

협력 강릉시

편집 강릉문화재단 예술교육팀


본 인쇄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강릉문화재단 주관 하에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5 꿈의 극단 운영사업
꿈의 극단 강릉 결과자료집

나와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무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새문 강릉문화재단

협력  강릉시